

송광사 조계산의 두 사찰 선암사

오랜 도반은 아름답다

매년 두차례 친선축구... 강원·선방도 교류

조계산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조계총림 송광사와 동쪽의 대교총림 선암사(조계종 제20교구 본사)는 옛날부터 수행, 사세 등 모든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지만 친교도 두텁다. 선암사는 현재 조계종과 대교총의 본규에 휘말려 있지만 두 사찰의 교류는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는 바람처럼 자연스럽고 고 자제다.

지난 15일 송광사 행자스님 20여명이 선암사를 참배하고 대교총 스님들과 점심공양을 함께했다. 강원이나 선원, 사중스님들이 조계산을 정기산행코스로 잡고 있

는 두 절의 스님들은 서로 오가며 점심공양과 차와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매년 2회씩 열리는 강원생들의 축구 등 운동경기는 본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실력도 엇비슷해 역대전적도 백중세다. 경기가 끝나면 두 절 주지 스님들이 격려를 하고 화기에에 한 분회가 이어진다. 이번 초파일 후에도 축구경기를 한차례 갖기로 서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열전을 앞둔 스님들의 각오 또한 대단하다.

공부하는 데에도 울타리없는 전통은 여전하다. 옛날 감백들이

서로 강원과 선원을 오가며 가르치고 배웠던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선암사 스님 2명이 송광사 강원유학 사교과와 대교과에서 공부하고 있다. 강원 못지않게 선방교류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허경만 전남도지사 부친 영결식에도 송광사 스님과 선암사 스님들이 함께 영결의식을 봉행했다. 이와함께 송광사와 선암사는 각 사찰의 내부행사에도 서로 참가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송광사는 가을수련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조계산 산행시 점심공양을 선암사에서 하는 등 두 사찰의 관계는 중단분류를 떠나 유별나게 가깝다.

송광사의 한 스님은 "종단간의 분규상황이지만 선암사와의 관계는 옛날과 다를바 없다"며 선암사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랐다. 선암사 스님은 "분규는 종단간의 문제일 뿐 전통적으로 가깝게 지내온 두 절의 관계는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김원우 기자)



금식의 날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한국대회가 25일 서울 올림픽 제2체육관을 비롯 25개 도시에서 개최돼 2만여명이 동참했다. 이 행사는 세계 36개국 107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새불교 승가회 실업가정에 쌀보내기 전개

5월 20일 1차분 전달

새불교전국승가회(공동회장 진관·석담)가 '실업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새불교전국승가회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98년 주력사업인 '생명존중사상으로 생명살리는 환경만들기'의 일환으로 결성 '실업자 가정에 쌀보내기운동'에 대한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실업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은 실제 가족들의 고통을 승가가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우선 회원스님과 전국 유대사찰을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시작해 전 승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불교사회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불교전국승가회는 5월 20일 1차 전

"국립공원 국고로 관리" 최재욱 환경장관 밝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최재욱 환경부 장관은 20일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무원업무가 입장료관리 위주로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국고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회관에서 20일 열린 98 금수강산국립공원사건대진 개막식에서 밝힌 최장관의 입장표명은 2월 정권인수후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추진의사를 밝힌데 이어 처음 거론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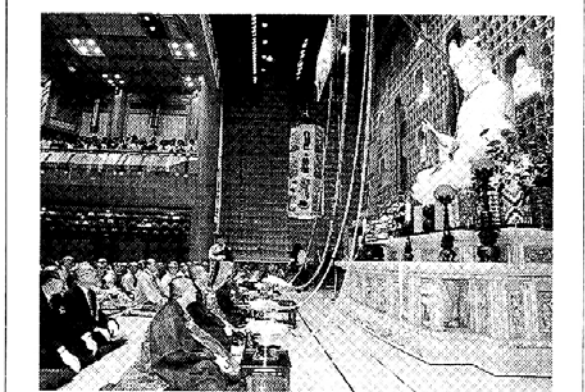
조계종 교과서연구위 18일 창립

조계종포교원 부설 교과서연구위원회가 창립했다. 18일 포교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창립대회에 조계종포교원 부설 교과서연구위원회 위원장 최태준(포교원)과 부위원장 성수스님(포교부장) 법경스님(연수국장) 교우익법사(교법사단장) 임완숙교사(교사불자연합회장), 5개 분과위원장에게 각

각 위촉장을 수여했다. 교과서위원회는 각 분과위원로 초, 중, 고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의 검토와 이에 따른 교사용 지도자료를 개발, 10월초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중·고등학교 불교교과서도 집필한다.

청소년사경 작품대회 파라미터, 5월12일까지

파라미터(회장 현근스님)와 전국국교법사단(단장 교우익)은 전국 청소년 사경작품을 5월12일까지 공모한다. 우수작품 5백여편을 시상하게 될 사경 공모전의 시상 및 회향식은 5월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관문사 옥관음상 점안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26일 관문사에서 1인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년국 국부기원 및 옥관음 존심 봉안 점안식'을 봉행했다. 경제년 국부기원 전 중도의 발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실직자 돕기 자비보시회를 설치하고 모금활동을 펼쳤다.

"총무원-신도회 협의기구 구성"

월주 총무원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4일 총무원을 방문한 총무원총무위원 등 중앙신도회 운영위원들에게 "중앙신도회와 총무원 관계자 4~5인이 참석하는 실무자 협의기구를 구성해 '중앙신도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월주 총무원장은

이러 "협의기구 구성 전에 신도회의 체제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주 총무원장은 이날 신도교무국은 현재 회관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밝혀 신도회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재전회장의 사퇴문제는 신도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종헌개정-규제해제" 신학원, 조계종에 요구

신학원(이사장 정일)은 9일 조계종이 발표한 성명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 조계종이 종헌 9조3항의 부분적 개정과 현재 실시중인 선학원 소속 스님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선학원은 16일 법인 임원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종단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재단과 종단의 현안문제는 선학원 일부 이사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법인 법리상의 문제요 상호 불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축기간 교계 효도잔치 '풍성'

부처님오신날과 어머니날을 맞아 경로 효도잔치가 푸짐하게 마련됐다.

능인선원(원장 지광)이 23일 서울 강남 구룡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연데 이어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과 구로종합복지관(관장 설용)이 28일, 30일 각각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대구에서도 화성사(주지 풍목)가 24일 효도잔치 한마당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과 법암사(주지 실상)가 25일 각각 노인위안잔치를 마련했다.

어머니날을 기념한 효도잔치도 잇달아 열린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민)은 5월6일 복지관 강당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등 불우한 노인 1백60명을 초청, 문화공연 등 '어머니날 감사잔치'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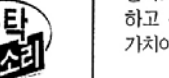
대구 판오사(주지 지도)는 5월3일 법률근린공원에서 '심정이 효도잔치 한마당'을, 동화사 불교사회복지회(회장 성덕)는 5월12일부터 28일까지 경로당을 순회하며 효사랑 나눔사랑을 펼친다.

불자 연애인 임희춘씨가 회장으로 있는 노인복지후원회는 5월4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노인 장기자랑 예술제'를 연다.

교과서는 초·중·고등 학생들에게는 마치 성경같이 취급되는 매우 중요한 책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상을 보는 창문이며,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각계의 권위자가 집필에 참여하며, 사 진 한 컷, 토씨 하나도 꼼꼼하게 감수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18일 열린 교과서연구위원회 창립대회에서 교우익 동대부교 교법사(교법사단장)의 '중학교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을 통한 청소년 교화 방안 연구' 발표를 보면 교과서가 과연 투명한 창문인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교과서의 종교관련 기술이 지나치게 유신론적이며, 비교육적 예문이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취재1부 차장)

'유신론(有神論) 교과서'

교법사의 지적이 아니라도 "유신론적 종교 정의"에 입각한 편향한 기술"이며, 마땅히 다시 쓰여져야 할 부분이다.

그 같은 교과서 '청소년과 종교생활'에서 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종교갈등을 다루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 때문

에 고민하는 자식을 설정하고, '공부가 중요하지만 신앙 생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가운데 연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쓰고 있다.

상황실정의 의도를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다종교사회에서 관용의 정신을 가르치기는 커녕 가정 내 불화를 예로 든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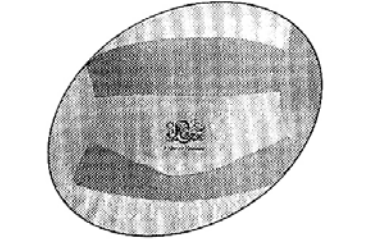
이에 대해 교육부의 정광삼 교육과정평가정책관은 "종교관련 내용은 만인이 모두 공감하기 어렵다. 포교원에서 공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새 교과서 집필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의 집필-감수 과정에 참여할 때만이 시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공은 다시 불교계로 넘어왔다.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 (자연형) 테크핀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이 항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속물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항비는 자연형인 테크핀과 멘톨이라는 물질은 생식세포를 자극하여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비만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적용하면, 침의 효능, 동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든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항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명체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항비를 배꼽(신원혈)에 착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랄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항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까지 넘겨질 정도로 항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력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배꼽이 검고 딱딱하다
 - 11 매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들린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 15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번개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감당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

상담실 080-200-4545, (02)755-9821

雲峰禪師·香谷禪師 法語錄 出刊!

금번 향곡선사문도회에서는 「雲峰노스님 55주기 및 香谷스님 20주기」를 추모하는 뜻으로, 수년 전에 간행되었던 두 분 스승님 法語錄을 再編하고 補完하여 雲峰禪師 法語·香谷禪師 法語로 2冊 1冊을 出刊하게 되었습니다.



운봉노스님 55주기 및 향곡스님 20주기를 추모하는 운봉·향곡선사의 법어를 담은 2책 1질 완간!

- ◆ 제목 : 운봉선사 법어 1책, 향곡선사 법어 1책
- ◆ 내용 : 行狀·上堂·示衆·擧揚·頌句·書簡 등
- ◆ 사양 : 4×6배판, 각 200쪽 344쪽 분량, 양정제본

“향곡선사문도회는 두 분의 뜻을 기려 諸方의 스님들께 법공양을 하오니 어록을 봉지코자 하는 스님들은 연락바랍니다. 즉시 우송하여 드립니다.”

○ 연락처 : 대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
여여선원, 해운스님 053)622-0336
부산 - 051)727-2035, 051)727-4694